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Display



<http://display.khu.ac.kr/>





---

## 2004년, 세계 최초로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신설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 중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시각 정보이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997년 정보디스플레이 전공을 대학원 과정으로 시작하여 2004년 세계 최초로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디스플레이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험/실습을 통한 체험적 교육,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대만/프랑스 해외 전공 연수와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경희대 복수학위제도를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주도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인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정보디스플레이/반도체/시스템 인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지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응용학문을 융합한 교육과정과 국제화 교육

디스플레이는 물리/화학/재료/전자가 융합된 분야로 4년 동안 소자, 재료, 회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1학년 겨울 방학 때 대만 Kunshan 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에서의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엘지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의(디스플레이 기술)를 매년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엘지니어스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명 이상의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엘지디스플레이 취업으로 연계해 왔습니다.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경희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대학원 1년, 프랑스 현지 1년 6개월 유학으로 Ecole Polytechnique와 경희대학교의 복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이끌어낸 연구시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전 세계 대학 중 유일하게 TFT-LCD, 능동형 유기 EL(AMOLED), 나노 재료 및 소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었으며, 외국 기업(UDC, Corning, Kodak, Intel 등)과 공동 연구 수행, 삼성전자와 Flexible Display 공동 개발, 삼성디스플레이와 AMOLED 디스플레이 공동 개발, 국가 지정 LCD 거점 연구단,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센터(ADRC), 삼성디스플레이-경희대 연구센터, 그리고 BK21 사업단 지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이뤄 왔습니다.

##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로 관련 분야 취업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로 엘지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 및 관련 부품/재료 업체, 삼성전자, 엘지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시스템 회사로의 취업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대학원 및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 진학을 통해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연구소(삼성종합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및 해외 기업(미국 Applied Materials, 벨기에 Umicore, 벨기에 imec 등)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왔고, 다수의 변리사와 교수를 배출하였습니다.



##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명성을 떨치는 교수진

정보디스플레이학과의 교수진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들(박막트랜지스터, AMOLED), 차세대 에너지 소자, 나노소재 및 소자, 다양한 센서 소자, 디스플레이/광반도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3차원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카메라, 디스플레이 회로, 화질 및 저전력 기술, 인지과학,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이루었고, 다수의 국제 학회 분과위원/분과위원장,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의 회장/이사, 국제 저명 저널의 편집위원 등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 석학 교수로 장진 교수는 한국 디스플레이 발전에 핵심 기둥 역할을 한 인물로 독자적 연구 기술로 능동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다수의 세계 최초 업적을 이루었고 이와 같은 역량으로 디스플레이의 성능과 기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현재 문명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호암상 공학상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권장혁 교수는 OLED 디스플레이분야 소자와 재료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다수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이루었고, 이러한 업적으로 Merck상 수상, 미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공로상 및 석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 디스플레이 시장이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은지, 그 전망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연구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어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수요도 많은 상황이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여전히 한국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의 학업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